"이정수 불참은 코치진 강압 때문"

대한체육회, 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 발표

곽윤기 메달 위해 전재목 코치가 '불출전 자술서' 강요

밴쿠버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 이정수(21·단국대 사진)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발목 부상 때문이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체육회(KOC)는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정수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한 것은 전재목 코치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난 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개인코치와 소속 코치, 선수 몇명이 모여 "함께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한 사실도 확인함에 따라 쇼트트랙의 뿌리깊은 '나눠먹기' 관행이 처음 확인되며 심각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에 따르면 발목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수와 김성일(단국대)은 "전재목 코치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불러주는 대로 불출전 사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정수는 "개인전 불참 강압은 전재목 코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연맹 고위 관계자들도 얽혀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전재목 코치는 "선수들이 자의적으로 불출전을 결정했고, 다만 선수들이 사유서 작성 방법을 몰라 문안만 불러주었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체육회는 "전 코치가 '선발전 당시 협의사항'을 근거로 직접 지도한 곽윤기(연세대)의 메달 획득을 위해 이정수와 김성일에게 (불출전 자술서를 쓰도록)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발전 당시 협의사항'이란 2009-2010 대표 선발전이 열렸던 2009년 4월 당시 3000m 슈퍼파이널 경기 직전 일부 코치와 선수들이 모여 함께 국가대표로 뽑혀 국제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협의한 사실이다. /연합뉴스

"대표선발전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

쇼트트랙 대표팀 '나눠먹기' 사실로 드러나 큰 충격

일부 선수들 교묘한 팀플레이…선발전 대수술 필요

지난해 4월 쇼트트랙 대표선발전에서 코치들과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려고 '나눠먹기식' 레이스를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8일 발표한 빙상연맹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선발전 3000m 슈퍼파이널 경기를 앞두고 일부 코치들과 선수들은 서로 랭킹 5위안에 함께 들어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시즌 국제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번 사실은 체육회 감사팀의 조사를 받은 전재목 대표팀 코치와 이정수, 김성일(이상 단국대)의 증언을 통해 나왔다. 대표선발전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다.

결국 전재목 코치는 당시 합의를 들어 이정수에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곽윤기에게 개인전 출전을 양보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 자발적으로 빠졌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이정수에게 불출전 사유서를 받았다는 게 체육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정수 역시 대표선발전에서 짬짜미에 참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쇼트트랙계에서는 대표선발전을 포함해 국내대회에서 일부 선수들끼리 우승을 나눠먹으려고 '팀플레이'를 펼친다는 소문이 퍼져있었다.

특정 선수를 떨어뜨리려고 하위권 선수가 상위권 선수와 일부러 충돌하거나, 소속팀이 다르지만 같은 코치 밑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다른 코치 소속 선수들의 진로를 교묘히 방해하는 '팀플레이'가 자행됐다는 것. 팀플레이는 쇼트트랙 규정상 실격사항이다. 하지만 사실상 상위권 선수들의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심판들도 '팀플레이'를 잡아낸다는 게 쉽지 않다.

한 쇼트트랙 심판은 "지난해 대표선발전에서도 밀어주기식 경기 운영이 일부 감지됐다"며 "일부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심판은 "예전 대회에서도 눈에 띄게 밀어주기식 팀플레이를 펼쳐서 세 차례나 실격을 줬던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워낙 선수들이 지능적으로 경기해서 이를 잡아내는 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정의 공정성을 앞세워 외국인 심판이 대표선발전을 맡아온 것도 '짜고 치는' 팀플레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쇼트트랙 관계자는 "국내 심판들은 국내 선수들이 어느 코치 밑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외국인 심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라며 "외국인 심판은 유니폼이 다르지만 같은 코치 밑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밀어주기식 팀플레이를 절대 잡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나비처럼 날아서 8일 오후 부천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열린 2010 KRA컵 SBS 탁구 챔피언전 8강에서 대한항공 당예서가 단양군청 이은희의 공을 받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주말 광양서 '남도더비'

광주 최성국, 전남 새 용병 인디오 앞세워 승점사냥 총력

주말 광양그라운드에 시즌 첫 '남도더비'가 펼쳐진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와 동향의 라이벌 전남 드래곤즈가 10일 오후 3시30분 광양전용구장에서 정규리그 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초반 돌풍을 준비했던 두 팀은 승점 사냥을 위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상무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11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주 휴식기를 보낸 전남도 6경기에서 1승2무2패를 기록하며 13위까지 내려앉았다.

상무는 광양 승부에서 2무8패를 기록하며 한 번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무는 최성국의 복귀로 힘을 얻었다. 지난 4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최성국이 전남을 상대로 득점포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대전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됐던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도 정상적으로 광양에 출격해 승점 더하기에 힘을 보태게 된다.

전남은 새 용병 인디오를 전면에 내세우고 순위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경남에서 활약했던 인디오는 올 시즌 전남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최성국과 인디오의 공격력 대결이 광양 주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버풀, 137억에 이청용 영입 추진"

볼튼 코일 감독 "빅클럽 이적 나중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볼튼 원더러스의 오웬 코일(44) 감독이 '애제자' 이청용(22)이 빅클럽에서 뛸 충분한 자질을 갖췄지만 소속팀에서 더욱 더 발전을 이룬 뒤 나중에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데일리 스타 등은 최근 리버풀의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800만 파운드(약 137억 원)에 이청용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코일 감독은 7일(이하 한국시각) 볼튼 뉴스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이청용이 리버풀 같은 빅클럽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 다만 (리버풀과)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며 이청용의 리버풀 이적설을 일축했다.

광양제철고 이종호 맹활약

U-19 축구대표팀 獨 제압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 이종호(광양제철고)가 축구 강호 독일을 제압하는데 주역이 됐다.

이종호는 8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알 아인의 알 카타라 경기장에서 열린 UAE 4개국 대회 1차전에서 후반 16분 결승골을 터뜨려 독일을 1-0으로 제압하는데 주인공이 되었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월드컵 8강 주역인 '광양 루니' 이종호는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승리를 이끌었다. 대표팀은 11일 오전 0시15분 이집트, 12일 오후 9시15분 개최국 UAE와 각각 2, 3차전을 치른다. /서승원기자 swseo@